

企劃論文

# 동양철학은 왜 이리 어려운가? 어디로 길을 뚫어야 할까?

한 형 조\*

- 
- I. 전통에서 현대 사이, 단절된 언어의 심연
  - III. 그럼 ‘동양철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
  - II. 근대의 도전에 맞선 동양철학의 대응  
양상과 문제점
- 

동양철학은 어렵다. 이견 시중에서 이 분야의 책을 한 권 뽑아들거나, 혹은 특정 인물이나 사상을 알고 싶어 관련 논문을 뒤적여 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반 독자만의 경험이 아니다.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도 다를 바 없다. 서로 남의 글을 읽을 수 없다고, 대놓고, 혹은 뒷전에서 투덜댄다. 학생들도 동양철학의 秘傳의 소문과 알 듯 모를 듯한 향기에 취해, 혹은 거창하게 동양을 극복하자고 전공을 선택했다가 후회하고 돌아서기 일쑤이다. 다른 분야들에서는 이 성과를 이용하기가 너무 거칠고 요령부득이라고 불만이 충천당자하다.

그런데 다시 보면, 이 사태는 동양철학만의 것이 아니다. 서양철학 또한 동일한 사태에 직면해 있고, 나아가 다른 인문 사회과학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동양철학은 작금의 화두인 ‘인문학의 위기’와 그 원론과 진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철학

논의의 순서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1) 전통의 유산은 단절되었다!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식민시대에 전환된 언어 체계는 근대성의 코드로 무장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2) 이 도전적 현실에 전통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무시, 야유, 변명, 칩거가 그것이다.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3) 이 넷 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대응 양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거기 필요한 조건과 원칙들을 제시한다.

## I. 전통에서 현대 사이, 단절된 언어의 심연

우리가 쓰는 말은 20세기 초 일제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근본적 전환을 겪었다. 그리고 그 주축은 ‘한자의 형상을 한, 서구의 문화와 지식’이었다. 이 전환은 해방이 되어서도 복고되지 않고, 더 공고화되었다.

이 말에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문물이 발전함에 따라 용어는 늘어나고, 사회가 변하면서 기존 개념들의 의미망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을 뿐인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동일한 한자의 꼴을 하고 있지만 전통과 현대 사이에는 근본적 심연이 있다. 그 둘은 좀 과장하자면 서로 다른 개념 체계, 서로 다른 언어이다. 동양철학의 근본 문제는 이 구분이 모호하고, 충분히 자각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동양철학의 발표나 논문, 저술 등을 보면 거기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들이 착중 중첩되어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1) 고전 한문: 전통적 텍스트의 용어와 개념, 어법과 어투.
- 2) 재래의 고유어 형용사와 부사등 주로 감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감성적 어휘들과 토씨.
- 3) 서양의 번역어들과 그 관용어법: 대개는 한문의 문자형상을 하고 있지만 즉

보와 기원, 용법이 전혀 다른 개념과 표현들

전통적인 언어는 1)과 2)의 결합이었고, 현대어는 2)와 3)이 주축이다. 우리는 지금 후자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가끔 1)이 섞여 아련한 기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작은 변주를 줄 뿐이다. 그러나, ‘동양철학’을 할 때는 1)이 중심에 등장한다. 그래서 평화롭던(?) 2)와 3)의 결합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다. 두 체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뒤섞이면 충돌과 혼란, 심지어는 폭발까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둘이 얼마나 이질적이고, 적대적인지 보통사람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잘 자각하지 않고 있다. 거기 문제의 진원이 있다

차라리, 둘이 전혀 다른 문자 형상을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이질감은 쉽게 감지되고, 문제는 더욱 뚜렷해져, 급박한 해결을 촉구했을 것인데 동일한 한자의 형상 때문에 아예 문제가 인지되기 힘들었던 것이다. (\*현재 이 두 체계를 구분해주는 사전은 없다.)

그 전환의 기점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다. 이 책은 현대어로 번역하기에 그리 까다롭지 않다. 이 책은 국한 혼용에다가, 지금도 통용되는 ‘현대식’ 개념을 많이 썼기에, 조금만(?) 손보면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다. 한 페이지만 들추어도 ‘정부’, ‘이론’, ‘천문학’, ‘생물학’, ‘화학’ 등의 용어들이 눈에 띈다. 물론 ‘성리학’은 재래 용어이고, ‘發明’ 또한 “개발한다”가 아니라 “밝혀 낸다”는 전통 개념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책은 한 세대 전의 전통 유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책이었다. 그들에게는 서양의 문물과 제도가 무척 낯설었고, 그것을 개념화한 언어와 표현들이 거칠고 자의적이었기 때문이다.<sup>1)</sup>

요컨대 ‘開化’와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말과 글까지 새롭게 바꾸었던 것이다.

1) 해강 최한기라면 아마도 힘들었겠지만, 『서유견문』을 읽어냈을 것이다. 그는 心學보다는 事物學을 하고자 했고, 그 자원을 전통적 유학보다 북경에서 한역된 西學書들을 축으로 섭취했던 선구였다. 그는 새로 수입된 서양과 과학과 기술 용어를 자신의 사전에 등록하고, 또 전통의 개념들을 ‘자기 식으로’ 변용하고 재해석해서 썼다. 전통 주자학이 복잡하게 다듬어 세운 性理의 선형적 지도를 무시하고 事務의 경험적 지도로 치환시켜 버렸기에, 당대의 유학자들은 그의 억지(?) 한문 문체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주류로부터 무시당했다. 이해가 안되니 토론도 할 수 없었고, 비판도 과녁을 비껴가기 일쑤라서 해강의 학문은 외로운 서재의 성취로 남았다

곧 이은, 일제의 식민지배는 단순히 우리말과 한자대신 일본어의 알파벳을 쓰고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민지 경험은 ‘고전 한자를 중심으로 하던 우리의 언어체계’를 ‘일본식 한자로 변안된 서구어 중심의 언어체계’로 바꾸어 버렸다

일본은 18세기 후반부터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번역작업’을 발전시켰다. 국가적 규모의 이 사업은 중국의 불교가 5세기 구마라습과 7세기 현장의 譯經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이 번역을 통해 ‘중국 불교’가 성립할 수 있었듯이, 일본의 ‘서구화 근대화’ 또한 이 대규모 번역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성과는 일본 사회에 빠르게 흡수되어 갔다. 번역을 통한 서양 근대 문명의 이식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유길준에게 開化를 가르친 그 후쿠자와 유키치이다.<sup>2)</sup>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번역어들도 동시에 이식시켰다. 해방 후, 우리는 우리말을 찾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고유 일본어는 물러갔지만, 일본식 표현은 많이 남았고 무엇보다 일본이 해 둔 서구식 번역어들은 고스란히 남았다! 식민지 시대를 거친 지식인 학자들은 옛날의 유생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의 문화와 사상, 제도 등을 선진적으로 흡수했고, 그 과정에서 ‘전통 한문’이 아니라 ‘일본식 교양과 서구화된 지식’으로 무장하고 사회를 주도했

2) 유길준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을 방문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1년 반동안 후쿠자와의 집에 기거하며 그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게이오 의숙(慶應義塾)에서 후쿠자와가 지은 『西洋事情』 『學問의 권유』, 『文明論의 概略』 등 개화서를 읽고 자신도 그런 계몽서를 집필할 꿈을 가지게 된다. 임오군란으로 귀국했던 유길준은 1883년 報聘使의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자 거기서도 눌러 앉아, 학업을 계속했다. 2년이 채 못되어 갑신정변이 발발했고, 고심 끝에 자진 귀국을 결심하는데, 배편 사정으로 1년을 유럽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경험들이 『서유견문』의 토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철두철미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을 의식하고 쓰여졌다. 아니, 그 가운데 3분의 일-임전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71편 가운데 26편-이 아예 후쿠자와의 책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任展慧, 「일본에 있어서 조선인의 문학과 역사」, 이한섭 편저, 『서유견문』, 박이정, 45쪽) 유길준 자신, 이 점을 숨기지는 않았다. 『서유견문』의 서문에서 그는 “本書의 輯述함이 或 自己의 見聞을 隨하여 論議를 立한 것도 有하고, 他人의 書を 傍考하여 譯出한 者도 有하니...”라고 했던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참고하고, 얼마만큼 베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요즘은 학술 게치럼 어디까지가 내 아이디어고 어디까지가 남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강박’은 그에게 없었다. 그 당시 중요한 것은 ‘계몽’이지, ‘저작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 해방이 된 후에도 그 지식인과 학자들이, 배운 그 자산을 축으로, 해방 이후의 한국의 지식과 학문을 담당했다.<sup>3)</sup>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제 분과를 돌아보아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걸 거스를 수 없다. 그 후 전통적 언어는 다시는復古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서구화’되어 있었다. 학문분과의 ‘이름’부터 그렇지 아니한가. 哲學, 歷史, 生物, 物理, 工學 등등. 이들 개념들은 전통 한학의 연장선에서 유추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변안어들이었다. 그리고 그 변안의 기원은 서구의 사상, 학문, 제도, 문물이었다.

지금 각 전문 분야에서 쓰고 있는 한자식 용어의 ‘대부분’이 서구어의 변안이다! 설마 그럴까 하고 고개를 젓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문 영역뿐만이 아니다. 저널이나 논문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쓰고 있는 한자말의 대부분이 또한 서구어의 변안 개념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전통 시대에 쓰던 한자말도 섞여 있다. 그러나, 그런 용어들조차 원문맥은 숨거나 혹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 변화는 깊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하다. 다만 그 실상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 차이들이 부딪치고 뒤섞이는 마당을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유희로, 드물게는 창조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전통 한자어는, 그것이 ‘현대’에도 통용되는 말일 때, 크고 작은 의미와 용법과의 ‘거리’를 갖고 있다. 특히 그것이 주요한 철학적 용어일 때는 거의 틀림없이 그

3) 서양의 문물을 서구로부터 직접 수입하게 되면서 일본의 매개가 되조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서구의 저작들은 최근까지, 아니 지금도 일본의 重譯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번역의 수고가 컸을 텐데도 서문이나 역자 후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거나, 새삼 내용을 동취서초하고 있다면 거의 중역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본문을 들추어 볼 때, 번역이 딱딱하고 단조로우며, 고유명사의 표기가 어색하고, 잘 쓰지 않는 한자어들이 눈에 뜨인다면 그런 책들도 중역일 공산이 크다. 물론, 일본어 중역이 어설피게 직접 번역한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 폐해 또한 적지 않다. 우리가 일본의 매개를 통해 학문을 했고, 그 영향 또한 막강하나, 일본의 문체와 글쓰기는 우리의 것과 엄연히 다르고 또 지금은 더욱 낡은 것이 되었다. 서구의 저작들을 다시 번역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면 다른 논문이 필요하다.

안에서 ‘가치’가 뒤바뀌고, ‘세계관’이 엇갈리며, 그리하여 ‘문명’이 충돌한다. 예를 몇 가지만 든다.

-의미와 용법이 달라진 것들: 測量 折衷 橫說豎說 完璧 生産

-가치가 뒤바뀐 것들: 功利 權利(人之所以驚于權利, 溺于富貴, 犯難而不悔者, 將以厚其身耳. 蘇軾, 『老子註』), 穿鑿

-세계관이 엇갈리는 것들: 自然 本性 事物 心 道德 國家 實學 學問

-문명이 충돌하는 것들: 道.

이렇게 고유 한자어까지 ‘서구화’하고 있다. 전 부면에 걸쳐 이 사태는 역전되지 않고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새로운 용어와 어법의 공급자는 밖에서 온다. 물론, 안에서도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로 감정어, 일상 비속어, 재치어, 정치적 풍자나 유모어 등등의 일이다. 학문적 용어, 공식적 용어를 유구한 전통의 언어로 공급받는 법은 거의 없다.

나는 이 서구화의 진척이 실제 어느 정도인가 싶어 내 발표문 하나와 다른 이의 논문 하나를 집어 들고 점검해본 적이 있다. 전래의 용법에 기원을 두지 않고 있는 ‘서구 개념과 용법의 번역 한자’가 문경 80%를 상회하고 있었다. (\*고유 한자어이나 지시나 의미 내용이 서구적 그것으로 바뀐 것도 포함해서 그렇다.) 오늘 자 신문을 펴도 좋고 월간지도 좋다. 좀 학술적인 책이나 저널을 펼치면 이 퍼센티지는 더 높아진다. (\*물론, 시나 소설, 수필 등으로 가면 좀 낮아지지만 그러나 문학 안에서도 감정의 토로를 넘어 사유를 개진할 때는 이 퍼센티지가 높아진다.)

지금은 굳이 ‘한자 번역어’에 의존하지 않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를 굳이 전자계산기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둘러싼 용어들, 인터넷과 아이티, 공학이나 경제 등의 전문용어들은 아예 원어를 그대로 운용하는 비율도 커져가고 있다. 외국어가 점점 낮설어지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분야의 학문들은 달라진 언어 현실과 별반 갈등을 겪지 않는 듯하다. 경제학이나 물리학은 이런 문제를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조회할 필요가 없거나, 조회할 강제가 없기 때문이다. 컴퓨터 공학처럼 전통과의 연계가 없거나 또는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전통의 학문적 성과를 돌아볼 필요가 없을 때, 그때 달

라진 언어로 인한 갈등은 최소화된다. 이것은 인문사회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철학, 그 가운데서도 동양철학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다. 동양철학은 지금 서구화된 언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혹자는 그 언어를 배우면 될게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언어는 자체 구획된 개념들의 단순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표현과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표면적 사유는 물론 심층적 무의식의 가치와 관행, 그리고 편견까지를 담고 있다. 언어는 요컨대 한 문화의 전달자이며, 문명의 얼굴인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도감을 확인하고 사전에 뒤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점을 잘 실감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 ‘철학’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哲學은 전통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철학은 ‘필로소피’의 번역어로 자리잡으면서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학문이었다. 다만, 그것이 익숙한 한자어의 외양을 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것으로 착각할 따름이다.

필로소피(philosophy)는 처음에는 소리 그대로 ‘비로소비아’라고 음사되었다. 그러다가 니시 아마네(西岡)란 일본인이 고심 끝에 ‘哲學’이라는 이름을 창안(?)했고, 그것이 굳어져 유행되었다. 그러니, 동양의 전통에는 ‘철학’이 없다. 원효나 퇴계 율곡, 다산 혜강에게 이 말을 들이댔다면, 다들 고개를 가우뚱거리거나 실소를 했을 것이다. “거 무식한 친구들같으니..”

‘철학’의 외양을 한 필로소피가 등장함으로써 전통 유학이나 불교는 때 아니게 정체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도전받게 되었다. 논리와 체계로 무장한 철학은 묻는다. “얘야, 유교는 일상의 조연들로 가득차 있던데, 그건 철학이냐, 잠언집이냐?” 그리고 유일신의 초월성을 등에 업은 ‘종교’는 묻는다. “불교야, 너는 무신론같기도 하고, 다신론같기도 한데, 너를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물음이다. 그것은 흡사, 선글라스를 낀 권력자가 상대방을 심문하는 자세같은 것이었다. 육이오 전쟁때 산골의 어느 외딴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방문을 열어젖히고,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잘못 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불빛을 등지고 선 군인들의 신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유인지 모른다. 그러나, 동양철학은 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화들짝 놀

랐다. 당황한 나머지 그들은 혹은 부끄러워하고, 혹은 변명하고, 혹은 저만큼 피해 갔다. 그때 정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어야 했다. “대체 철학은 무엇이고, 종교란 건 또 무엇이나?” 하는 수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뻘뻘 수도 있어야 했다. “유교는 철학이 아니다. 그리고 불교 또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가. 가르침이고 배움이면 족하지 않은가?” 질문을 거꾸로 던질 줄도 알아야 했다. “예수는 과연 깨달은 사람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爲己之學인가, 爲人之學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퓌박할 수 있었어야 했다. “주자는 學者란 ‘제 몸의 自得을 통해서, 바깥의 사물에 사사로이 유혹되지 않고, 자신의 내재적 本然의 善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學者於此反求諸身而自得之, 以去夫外誘之私以充其本然之善也)’이라고 했는데 근대 이후 이 모델에 적합한 사람은 스피노자 말고 누가 있는가.”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러셀 이래, 철학은 삶의 보편적 문제이며, 서양의 철학적 전통만큼 동양의 철학적 전통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융합이 물고을 문명사적 의미가 심대하다는 것을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양에서도 철학을 과학의 오랜 시녀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철학은 역시 지혜의 과학(Philosophy is the science of wisdom)이다. 여기 지혜란 삶의 기술(Wisdom is the art of living)을 말한다. 삶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니, 쾌락이 아니라 덕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것이다.(Happiness is the goal, but virtue, not pleasure, is the road.) 이런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동양은 어느 전통보다 철학적이며, 이 기반 위에서 동서양의 철학은 절실하게 대화하고 풍요롭게 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다. “철학이 아니다”라는 대답은 “그것은 깊이 없는, 일상의 잔소리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거나, 야만적 습속이다”라는 것과 진배없었다.

바람직하게는, ‘철학’이나 ‘종교’는 자신의 물음 자체를 반성했어야 하고, 유학이나 불교는 철학이며 종교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구한 다음, 異同을 형량하고 대화를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게임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권위와 권력은 적극적 음미와 반성 이전에, 이미 저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바슐라르의 말 그대로, 심각한 인식론적 단절이었다.



이 단절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는 ‘동양철학’이라는 문패만 살펴도 알 수 있다. 전통 시대에는 철학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동양철학이 있었겠는가 이 이름은 오랫동안 ‘미아리의 시주와 관상’과 거의 등치되었다. 최근에 사정이 나아져 대학이나 사회에서 존재와 의의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도 ‘유교, 불교, 노장등을 뭉뚱그린 배낭주머니’로 치환된 형태로이지, ‘동양철학’이라는 고유의 실체로서는 아니다. 동양철학은 원래 없던 학문이다. 동양철학을 둘러싼 초보적인 문제들 이를테면 외연을 구획하고, 내포를 정의하며, 연구방법을 확정하는 일들이 아직도 암중모색이고 중구난방인 것도 이 ‘외재적 제국주의적(?) 태생’의 결과이다. 이 사태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개념 몇 개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게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전통에서 현대로, 개념과 어법, 표현, 스타일 전체가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이윽고 얼마 남지 않은 전통적 개념과 어법은 점점 더 영쇄해질 것이고, 전통과 현대의 심연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이고, 그 자체가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언어는 그 속에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특유의 코드를 함장하고 있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 그 지배는 거의 의식되지 않고 무의식까지를 규율한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요컨대 한자의 형상으로 의양된 ‘서구의 사유와 문물’이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사고와 시선, 가치와 행동 또한 의식 무의식적으로 ‘근대화’되었다. 이 침투와 지배는 깊고 본질적이다.

새로운 세대는 이렇게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고 학습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분야가 있다. 동양철학과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 II. 근대의 도전에 맞선 동양철학의 대응들: 양상과 문제점

익숙한 漢字라는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침입한, 서구와 근대의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도전 앞에서 동양철학은 몇 가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근대를 인정하는

냐, 아니면 '전통을 고집하느냐'에 따라 길은 둘로 갈라졌고, 각각의 대응 방식이 '소극적'이나, '적극적'이나에 따라 다시 둘로 갈라졌다. 이걸 내가 해본 破寂의 분류이고, 좀 위세를 빌리자면, '이념형'적인 것이라, 실제 어떤 인물이나 집단은 대개 한 쪽에 터를 잡지만, 다른 쪽에 걸치기도 한다는 것을 미리 일러둔다

## 1. 근대 문명과 가치를 선호

### 1) 무시형: (근대+소극)

앞에서 말한 컴퓨터 공학이나 물리학에서처럼 전통적 가치와 관행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서 무심한 사람도 있고, 서양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처럼 동양철학을 열등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동양철학이란 인생에 대한 잡다한 조언이거나, 뜬구름 잡는 아련한 이야기들, 지금은 돌아볼 필요가 없는 한 때의 에피소드로 생각한다.

이 자세는 주로 동양철학 '밖'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세의 연장에서 동양철학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있다.

### 2) 야유형: (근대+적극)

근대의 원리와 기준들을 업고, 전통적인 것들의 위선과 무능, 비합리와 권위적 측면들을 비판하는데 주력한다. 그 설교와 훈계는 확고해진 근대의 지배로 하여 언제 들어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불모의 작업이다. 네가티브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죽은 시체 위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면 좀 지나친가. 이런 유형은 대개 전통에 대한 표면적 관찰, 동양철학에 대한 단편적 인상에 입각해 있고, 그 시선 자체를 '회의'하거나 '유보'하려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유형에 대해 한 마디 해 두자면, 사람도 여러 얼굴이 있고, 행동만으로는 동기까지 읽을 수 없듯, 전통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고, 무엇보다 '내면'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齊桓公이 책을 거룩하게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수레를 꺾고 있던 노인이 그걸 "성인이 남긴 쓰레기 아니냐"고 툭 던졌다. "건방지게 감하"라며 화를 내는 제후에게 노인은 이렇게 해명했다. "수레바퀴의 속테를 헐겁지도 뺄

딱하지도 않게 깎는 그 섬세한 노하우는 자식에게도 전해줄 수 없어, 이 나이가 되도록 손수 이 짓을 하고 있다. 성인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다”

관찰자가 하나의 관심에 집착하고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고착되어 버리면, 사태를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없다. 진실은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쓰여진 자료와 그것을 읽는 역사가의 눈을 비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판에 주력하고, 피상에 자족하기 이전에, 혹은 그와 더불어, 가치에 주목하고, 심층에 닿을 내리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애정이 있어야 비판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통의 여러 부면 가운데, 특히 철학의 경우, 애정이 없으면 동양철학을 싸고 있는 난해하고, 복잡한 텍스트의 각질을 뚫고 그 속살을 만나지 못한다

## 2. 전통적 가치와 문명을 선호

권력에 관심이 있다면 근대 쪽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 지배적인 언어와 관행의 ‘세력’에 기대면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설득과 유포에도 힘들 덜 든다. 괜히 그 반대편에 섰다간 역풍을 맞받고 물을 거슬러 올라갈 각오를 해야 한다. 동양철학이 전통의 가치를 내세울 때, 곧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 이것은 ‘진리 이전에 ‘힘’의 게임이다. (\*동양철학은 진리를 영원과 객관에서 말하기를 즐기고, 또 애초부터 이익과 세력을 말하는 것을 꺼리는 탓에 이 점을 소홀히 하지만.)

가령, 은의 마지막 임금 紂가 그토록 포악하고 신망을 잃었어도 곧 망하지는 않았다. 주의 문왕이 천하의 중망을 한 몸에 안았어도 왕조의 교체는 그 아들 무왕과 주공을 기다려야 했다. 사마천은 “한신이 항우와 더불어 천하를 삼분해 있을 때, 그때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방으로의 통일이 굳어진 다음에야 어리석게도 딴 마음을 품었다가 아녀자의 손에 죽었다”고 탄식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첫머리에서, 세습 군주는 “평범한 정도의 부지런함과 유능함만을 갖추고 있다면”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의 통치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그의 가문이 단순히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다고 했다. 상식과 관성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신생 군주들은 개선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따르는 불가피한 억압과 피해 때문에 웬만한 지혜와 무력으로도 국가를 통치하기 어렵다고 적고 있다.

근대적인 것은 세습 군주이고, 동양철학은 신생 군주라고 할 수 있다

근대성으로 상징되는 세습 군주는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것을 공리주의를 축으로, 여러 근진적 코드들, 이를테면 개인, 자본, 과학, 산업, 생산, 노동, 효율, 권리 등등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한다. 근대는 사회를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으로 본다. 욕망은 충족되어야 하기에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은 적절히 조정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겠다. 자본과 산업이 이 라인을 따라 발전되었고, 그것이 야기할 불평등에 분개하여 사회주의가 자랐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공리주의에서 자라난 두 자식이다. 그들의 뿌리는 같다

공리주의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탈이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충족시키겠다는 원리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여기 시비를 걸면 배부른 소리라거나, 정직하지 못하다고 편잔을 받을 것이다. 이 원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가장 부응하는 원리같아 보인다. 대체로는 그렇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제한과 제어 없이 노골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 곧바로 문제에 부닥친다. 우선 욕망의 무한한 충족은 불가능한 꿈이다. 주변의 환경, 재화, 그리고 사람을 그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자를 예기치 않았던 소외와 갈등 속으로 밀어 넣는다. 혹, 욕망의 무한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는 행복의 향구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든 것이다.

공리주의는 상식이 믿고 있듯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다. 근대 이전 동서양의 어디에서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 원리는 적극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우선 살피기로도 그리이스의 소크라테스나 로마의 스토아, 그리고 중세 기독교문명은 기본이 금욕적이었고, 이 점에서는 유교 불교 노장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주류적 전통도 마찬가지였다. 욕망의 무한 충족이라는 테제는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고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원리인 것처럼 쉽게 믿어버린다

근대의 과학과 산업과 자본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 입법관 앞에서 다들 설설 기었다. 동양철학의 초기 대응은 두 가지뿐이었다. 구구

한 변명에 매달리거나, 아예 외면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유형을 변명형, 나중 유형을 칩거형이라고 하자.

### 3) 변명형: (전통+소극)

이 유형은 왜 전통이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대개는 전통 안에서도 근대의 자원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상당히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서세동점기 胡適은 중국이 논리가 없어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맞서 아득한 시절의 잊혀진 墨家와 名家를 끌어대어 중국에도 그것이 있었다고 논증했다. 일본이 조선은 자주적으로 근대화하고 산업화할 역량과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자, 우국지사들은 朝鮮學을 창도하면서, 조선 후기에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과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변호했다. ‘자본주의 맹아론’과 ‘實學’이 그것이다

실학은 그동안 조선 후기 연구의 중심 화두였다. 그를 통해 발굴하고 축적한 성과는 놀랄 만하다. 그런데, 여기 함정도 있다. 실학은 그 기준을 ‘근대성’에 맞추므로써, 그 렌즈에 잡히지 않은 나머지를 배제해버렸고, 초점 안에 든 것은 쉽게 부풀리고 왜곡했다. 자본주의 맹아론 또한 지금 심각한 파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해방 후 그 선두에 선 천관우 조차 “실학은 근대의 의식도 근대의 정신도 아니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조선 후기의 실상에 대한 접근이 근대성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또 민족주의적 강박에서 자유로울수록 더 크고 의미있는 성취를 이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처럼, ‘유물사관’ 또한 변명형에 속한다. 중국은 공산 정권 수립 이후, 과거 속에서 ‘초보적 형태의 유물론’을 확인해 나갔다. 氣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인물들이 그들 앞으로 불려나가 이런 저런 수식어를 붙인 유물론자가 되었다. 북한 또한 화답이나 녹문 등의 主氣論者들을 찬양하고, 理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혹은 위선적인 관념론자들로 치부했다. 물론, 유물론의 완성은 김일성 주석의 몫이고, 김정일 비서가 그 위대한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유물사관은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를테면 氣의 사

유는 유물론과 가장 멀리 있다. 氣는 물질이라기보다 정신이었다. 장횡거 서화담이 氣를 鬼神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 자연은 스피노자적 의미의 신에 가깝지, 물질적 동기로 투쟁 갈등하는 주체나 계급의 흔적은 없다. 너무 없기에 그들은 차라리 순진한 관념론자라 해야 한다. 그들의 삶의 지향이 투쟁이 아니고 은둔이라는 것도 그런 사정을 알려준다.

#### 4) 칩거형: (전통+적극)

이들이야말로 도도한 현실의 변화 속에서 진정 전통과 동양철학의 가치를 가슴에 안고 지켜온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트로이의 목마’의 정체를 알고 있다! 서구화된 현실, 근대화된 세상이 전통의 가치와 관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대면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 “도도한 공리와 사육의 대세를 막을 수 없는 무도한 세상이니, 종적을 숨기고 獨善其身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國無道 至死不變, 強哉矯! 한말의 간재 전우(1841~1922)가 이같은 태도의 상징이라 할 만하다. 그는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자, 이 미친 바람이 지나가고 다시올 요순의 시대를 그리며, 제자들과 함께 서해의 섬으로 들어가, 다시는 육지를 밟지 않았다. 해방이 되고, 주권은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 등장한 洋夷들의 지배를 못마땅해 하면서 여전히 섬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동양철학의 주류는 이들이었고 이들이 전통과 현대 사이에 실낱같은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은 대체로 유서깊은 명문가와 연결되어 있거나, 특정한 학통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산과 지혜가 私邸에서만 공유되고 있을 뿐, 廣場에서 소통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지금은 언어가 달라지고, 사고와 문화가 달라졌다. 그 현실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진실을 표명하고, 타당성과 유용성을 시험받아야 하는데, 동양철학은 쉽사리 칩거를 풀지 못했다.

\*칩거형과 변명형은 여러 면에서 대조된다. 공자의 경계대로 하자면, 칩거형은 學而不思의 폐단을, 변명형은 思而不學의 폐단을 갖고 있다. 칩거형은 주자가 말한 鵲巢吞棗의 혐의가 있다. 즉, “새가 대추씨를 바르지 않고 통째로 삼키듯” 텍스트를 분석하기를 꺼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말씀에 대

한 불경이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이에 비해 변명형은 지나치게 ‘穿鑿 한다 즉, 텍스트가 전하는 뜻을 정면에서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편견과 의도에 따라 대상에 엉뚱한 상처를 내고, 억지 시추를 한다. 옛적에는 그토록 꺼리던 작업?) 이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연구’와 같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역시 고금의 ‘學問’이 달라졌다.

다음 장에서 변명을 그치고, 칩거를 풀어 동양철학을 햇빛 속 광장으로 나서게 할 방도를 몇 가지 제시할 참인데, 그 전에 그 전에 변명형과 칩거형의 실제와 그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변명형의 문제 본시 변명이란 자주하면 구차하고, 많이 들으면 짜증이 나는 법이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 등의 가치를 ‘開化 시키지 못했다면 그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깨끗하다. 차라리 초점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하는 ‘반성’이 생산적이지, “우리도 열심히 그쪽으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변명’은 아니 하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한 두 번 하고 말았어야 한다. 실학 연구가 아직, 연대와 인물을 확정짓지 못하고, 또 아직도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정돈되지 않은 것도, 근본적으로는 변명으로 시작한 태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학은 식민사관의 결과이다. 그것은 본래 식민사관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식민사관의 논리에 말려들어, 그것을 도와준 형국이 되었다. 장담하건대, 실학의 논리는 결코 식민사관을 ‘극복 할 수 없다 친구가 놀리면 그저 웃고 지나갈 일이지, 거기 화를 내고 반응하면, 친구는 재밌어서 더욱 짓궂게 괴롭힐 것이다. 나라면, 놀린 남의 집 아이보다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화를 낸 내 자식에게 더 큰 꾸중을 할 것이다.

불교는 有無와 是非, 同異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놀랄 사람이 많겠지만, 거기 진실이 있다. 문득 누가 길을 가다가 “나 이제 담배 끊었어”라고 한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담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그 당시 담배를 끊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은 담배로 지배되어 있고, 그 생각이 남아 있는 한 언젠가, 곧 다시, 담배의 코드와 자극에 반응할 것이고, 이윽고 담배를 다시 물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사태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는 기실 근원에 있어 동일한

사태이다. 두 대립항들은 서로 맞서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사관과 실학 또한 서로 대립하지만, 공생적으로 얽혀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실학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과 분단, 좌우분열과 동족상잔이 없었다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굴욕을 겪지 않았다면 실학은 고집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실학이라는 이름 아래, 근대성과 과학, 산업만의 색안경으로 안전에 펼쳐진 생생한 풍경을 단색으로 도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나친 말이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학은 분명 조선 후기에 존재했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자료와 사실에 입각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타박하느냐고 되물을 것이다.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일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그것을 선별하여 읽을 때는 더욱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연관고리를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역사가의 ‘주관’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 주관은 당대의 현실과 조건, 문제의식과 편견에 깊이 물들어 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 사실은 없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실학’은 법이 아닌 相이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자면, 실학이라는 ‘표상’은 식민사관의 ‘공포’와 근대화의 ‘욕망’이라는, 즉 ‘의지’의 ‘산물’이다.

의지가 없다면, 혹은 의지의 방향이 다르다면, 그때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요컨대, 실학의 관점이 아니어도 조선 후기를 볼 수 있다. 물론 그것 또한 선택되고 해석된 것이겠지만, 만일, 우리가 객관적 法, 혹은 ‘물 자체’를 볼 수 없다면, 전혀 다른 주관들과 해석들을 통해 역사 해석의 일면성의 지배를 제어하고,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열어놓아야 한다.

실학이라는 일면성의 해석을 유보하고 변명을 그친다면 거기 새로운 천지가 펼쳐질 수 있다. 그러자면, 자신을 점유하고 있는 因循과 경직의 外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 자유로운 웃음과 유희의 정신이 필요하다.

실학은 식민사관과 근대화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래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절을 살고 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고, 눈부시게 빠르게 이



룩한 근대화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은가.

아직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실학이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대답한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해보자. 실학이 전면을 막아섬으로써, ‘근대’, ‘개혁’, ‘혁신’, ‘민중’, ‘과학’, ‘산업’ 등등이 과거 역사의 숨통을 눌렀다. 예술도, 문학도, 가족도, 사회적 교환과 교제도 관심밖으로 밀려나거나 하찮게 대접받았다. 거기 ‘개인’이 사라지고 ‘삶’이 지워졌다. 꿈과 고통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며, 일과 놀이를 하는 개인들의 ‘구체적’ 표정과 감정이 까맣게 지워졌다. 오직 근대적이고, 과학적이고, 민중적인 것들만 발굴되고, 성형되고, 고무찬양되었다. 이 앵무새, 획일은 이제 그만 지겹다.

누가 “연암은 실학자인가”라고 묻는다. “그렇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왜”라고 물으면, “민중의 아픔을 대변했고, 양반들을 풍자했으며 농사에 대한 실용적 기술을 제창했기 때문에”가 잇따른다. 짜고 치는 고스톱같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민중은 찬양되고, 양반들은 쓸어야 할 악이 되었으며, 자잘한 기술이 신격화되고 ‘마음의 수련이나 도덕의 천양’은 헛소리 아니면 위선, 혹은 민중들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추락했다. 그리하여 ‘주자학’과 ‘양반’은 싸잡아 악의 축이 되었다. 이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집단적인 잣대가 역사와 전통을 “그것이 일어난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퇴계와 율곡은 물론이고, 다산이나 연암, 혜강의 가치를 ‘근대성’의 그물로는 잡을 수 없는, 일찍이 공자가 노자를 두고 찬탄했듯이, “작살로 잡을 수 없고, 그물로도 덮을 수 없는” 지평에서 읽는다.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근대성이나 산업화니 백과전서파니 하는 안대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들의 진정한 개성과 가치는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논의를 듣고 있다면, 혀를 차거나, 더불어 웃거나, 또 혹은 오해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도 ‘실학’은 비교적 자유롭다. 느슨하고 영성하기에 거기 ‘숨쉴 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를 숨쉬면서 쓴 글들이 실학과 근대성을 의식한 글보다 ‘조선 후기’의 실상에 가까이 갔고, 그래서 더욱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유물사관은 이데올로기적 강박과 강제가 너무 강해서 위압적이고 딱딱하고 불친절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니, 도무지 재미라고는 찾을 수 없다. 이 방면의 글만 읽다가는 곧 동양철

학에 질려 나가떨어진다. 거기서 해매는 사람이 있다면, 한시바삐 빠져나와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미련이 있다면, 동양철학의 실체에 상당부분 익숙해지고 난 다음 부닥쳐야 그 虛實과 深淺을 올바르게 간파할 수 있다. 관점을 고정시키기 전에, 그 인간과 역사의 기록 앞에 겸허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유물사관에 입각한 글이 얼마나 재미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주기로 한다.

“위진시대에 이르러, 계급모순의 상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권문세족이 정치 경제적 대권을 장악해서 지주계급과 농민의 기본모순 외에 권문세족인 대지주와 중소지주 간의 모순도 현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사상 투쟁은 주로 貴無 철학과 崇有 철학 간의 투쟁이다. 하안 왕필 등은 無가 세계의 기초라고 주장하며, 有의 물질적 근본성 즉 물질존재의 實 성질을 부정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유심론이다...귀무 철학은 권문세족의 이익을 표현한다. 권문 세족들은 실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 예문은 그래도 그 안에 구체적 정보 한 둘을 담고 있는 ‘좋은 글’에 속한다는 점을 귀띔해 둔다.

실학과 유물사관을 함께 분류하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은 물론 다르다. 그렇지만, 특정한 이념적 선입견 그리고 특정한 목표에 강박되어 역사적 실재를 재단하고 격자화하는 점에서, 정도와 목표는 다르지만,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둘 다 변하고 있다. 실학은 자생적 근대화의 실패에 대한 강박을 벗으면서 역사적 실재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자본주의적 개방이 급속하게 진척되면서 전혀 다른 역사 해석으로 나아갈 것이다. 북한은 여전하다.

4) 칩거형은 청학동이나 토굴, 서당이나 강원으로 있다. 그들은 경전을 전통식으로 읽고, 해석에 있어 특정한 권위에 의존한다. 이 유형은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근대적 제도의 형식을 갖추어 전승되기도 한다. 논문이나 저술을 일별하면, 거기서론 본론과 결론이 있고, 목차가 있으며, 자상한 각주가 붙어있다. 그러나, 거기

운용되는 개념과 문장 구성, 그리고 스타일은 차라리 고전에 토를 단 ‘諺解’에 가깝다.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칩거형의 문체는 대강 다음과 같다

“知的 行을 지도하고, 행은 지를 체현하며, 지는 행을 열고, 행은 지를 완성한다. 지 가운데, 행이 있고, 행 가운데 지가 있으며, 지가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지가 있다. 행 가운데 지가 있다고 본 왕수인의 견해는 정확한 것이다. 왕수인은 행이 지를 체현 완성한다는 관점을 지녔는데, 이것은 행이 지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참되게 아는 것은 곧 행하게 되는 까닭이 되니, 행하지 않으면 안다고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였다…왕수인은 行을 떠나서는 眞知가 없다고 여겼으며, ‘일에서 연마해야 함(事上鍊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치에 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읽을 수 없는 글이다. 읽자면 원문을 다시 복원한 다음 이를 원래의 문맥에 놓고 切問而近思, 사유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러니 번역이 하나하나한 것이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이런 암호와 주문에 질리면, 독자는 “차라리 하면서 직접 원전으로 향한다. 이때다 싶어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다 “한문은 직접 파고 들지 않으면 맛을 모른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말도 없다

한문을 직접 읽으라고 순진한 사람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축적을 나누어주는 것을 사명이요 보람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처음 칩거형의 글을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런 글이 태반이다. 어찌 이걸 읽으라고 준 거냐고 불평도 원망도 많이 했다. 내가 이 성과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문을 대강 뜯어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한 사상가의 연대나 생애, 일화 등의 ‘역사적 기술’은 인물의 대강을 스케치해주고, 인용한 ‘원문’들은 해당 인물과 사상의 특징적 면모를 알려준다. 나는 이제는 불평하기보다 그 성과를 활용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이다.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반독자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방식은 ‘학문적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번역’과 ‘해설’은 원문 뒤를 따라가기도 벅차고, ‘비평’이나 ‘평가’는 과녁을 비껴가거나, 잘못 쏜 화살일 때가 많았다. 앞에서

든 칩거형의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일별하면, 그 글은 원문을 거의 직역해 놓고 지나가면서 칭찬 혹은 비판을 덧붙이는 정도에 그쳤다.

칩거형의 글에서는 대개 해석자의 관점과 주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모호하고 신비스런 용어와 개념들이 바람처럼 일어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 거기서 메시지를 읽고 자양을 삼으려면 용을 낚아채는 屠龍의 기술이 필요하다.

### III. 그림 ‘동양철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관건은 ‘달라진 언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서 시작한다. 이 조건만 전폭 수용하면 길의 절반은 열린다. 私邸에서 칩거하며 광장의 인간들을 훈계할 수는 없다. 전통은 ‘지금 여기’로 걸어나와, 한때 영광이었던 그 빛나는 자산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조언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를 묻고, 대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영광과 향수에 취해, 달라진 현재를 불평하고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동양철학은 이제 인정된 권위도 통용되는 상식의 지원도 없이 험혈 단신, 비바람 속을 헤쳐나가 자신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벌거벗은’ 자리에 섰다. 혹시 전통 시대의 달콤한 기득권에 연연하거나, 옛 시절의 영광을 아련히 떠올리는 동양철학자가 있다면 일찌감치 꿈을 깨야 한다.

칩거를 풀 때, 동양철학은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 1) 권위의식을 버려라

세상이 바뀌어도, 동양철학의 권위의식은 뿌리깊다. 유교든 불교든 본시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설득적이기보다 훈계적이었던 탓도 있다. 성현을 본받고, 불보살에게 귀의하는 것을 학문이요, 길로 알아왔던 탓도 크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그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무의식적으로라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동양철학에겐 아무런 특권도 없다. 그 ‘이름’만으로 행사하던 권위는 이제 없다. 예전 시대에는 ‘공자’라는 이름은 신성 그 자체였다. 거기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정약용조차 공자라는 이름 앞에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바쳤다. 한말에 와서 최한기만이 “공자라는 이름의 가치는 그가 한 일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따라, 공자가 벌여놓은 사업을, 그 오래되어서 적응이 어려운 것은 오늘의 필요에 따라 損益하고 取捨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아득한 세월이 흘렀다. 이제 공자는 코미디 프로의 한 코너로 등장해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겠다”고 파천황의 주장을 펴도, 피바람은 커녕 별다른 소동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주자의 권위 또한 땅에 떨어졌다. 17~18세기 ‘주자’라는 학자의 주석 몇 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혹은 죽고 혹은 귀양가는 일이 멀쩡히 자행되었지만, 지금 그것은 아득한 야만의 습속으로 남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지난 시절의 에피소드라는 것에 안도하고 감사한다.

동양철학은 지금 왕관을 잃고 딸들에게 버림받아 황야를 헤매는 리어왕 신세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오히려 동양철학을 위한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벼랑끝의 위기야말로 진짜 기회인 것이다. 아무런 기득권 없이, 의상이나 명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설득시킨다? 신나는 일이 아닌가. 동양철학 안에는 고귀한 가치,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유통시켜야 하지, 주머니속 보물이나 집에 둔 금송아지처럼 괜히 있는 척 안개를 피워서 안된다. 유교가 영원한 진리라면,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라면,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 2) 동양철학에 신비나 신통은 없다.

동양철학의 진리는 범인들이 쉽사리 소통될 수 없는 비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하철에서 가끔 개량한복을 입은 도사들이 “氣에 관심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듣고 보는 것이 모두 氣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앉아서 공중을 날거나, 며칠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그런 怪力亂神의 테크닉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기 혹해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 불교도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소식이 터지면, 하늘을 놀래키고 땅을 울리며, 관우의 청룡도를 뺏아줘 뺏, 부처가 막아서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막아서면 조사를 죽인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랄 한 순간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듯 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무문관』은 거기 이렇게 적고 있다. “물음을 절실하게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익어 어느날 안과 밖이 합쳐지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 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번뇌와 망상으로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지속적 주시와 자각을 통해 치유되어 가는 ‘점진적 과정’을 일러주고 있다. 거기 목표는 신통이 아니라 통합이며, 과정 또한 頓悟가 아니라 漸修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깨달음을 신비화해서는 안된다. 동양철학에는 무슨 거창한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알면 우주를 말아먹고, 일거에 일상의 누추함을 벗어던지고 비상할 ‘비밀의 권능’은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굴곡을 거치며, 작게 혹은 크게 삶을 배우고 있는 바, 그 속에서 각자 깨달음의 불씨들을 일깨워가고 있는 수행자들이다.

일찍이 주자는 돈오의 禪學을 위태롭게 여겨, 일상의 居敬窮理의 漸修를 그토록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 주자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이 없지 않다. 理란 거경의 涵泳과 격물궁리의 極處에서 豁然貫通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초월’이나 ‘정보’가 아니라 점진적 ‘성숙’임을 알리자는데 그 취지가 있지, 가르침이나 경지를 신비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감히 말하건대, 동양철학에 특별한 것은 없다.

선가에서도 그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別無奇特” 불교는 우리가 세계를 보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점을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해능은 西方淨土조차도 ‘심리적 현실’일 뿐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놀란 고관들과 청중의 무리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줄까”라고 농담을 했다. 저 너머의 세계는 없다.

### 3) 민족주의적 강박이나 민족지적 특수성에 의존하지 마라.

한국에게만 있는 ‘고유성’을 유독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는 본시 인도나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의 가치는 인종과 민족, 시대와 조건을 넘어서 행사하는 보편적 설득력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원효와 지눌, 퇴계와 율곡은 신라나 고려, 조선의 특수한 시대에 한정된 ‘역사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 물론, 뛰어난 사상가는 시대를 외면하고, 자기 속으로 침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몸으로 구현한 그들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런 사상가들의 호소력과 시대적 가치는 당대를 넘어 보편적 감동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사람들을 ‘한국적인’이나, ‘우리 고유의’라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

는 것은 무지이거나 태만이다. 위대한 인물들의 가치와 의미를 선전이나 위신, 결속이나 권위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훼손시키고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컨대, 불교의 목적은 “사바의 고통을 넘어 안정과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조건과 가능성을 묻고 있다. 그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탈정치적 탈민족적 탈역사적 운동이었고, 그것이 인도를 넘어 세계로 전해진 근본적 동력이었다. 불교에는 국적도 없고 국경도 없다. 그것은 흡사 자본과 기술처럼 국경과 민족, 문화와 종교를 넘나든다. 불교는 다른 정신적 전통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마당에서 가령, 원효가 경쟁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가 ‘한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4) 현대적 의제에 영합하거나 들러리를 서지 마라

그동안의 오랜 ‘칩거’를 청산하고 세상에 나서기로 작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청학동에서 서울로 올라온 댕기 머리 총각처럼, 고층빌딩에, 차들은 확확 지나가고, 쇼 윈도우에는 눈을 어지럽게 하는 상품들이 현란한 조명 속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청학동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튼튼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이 세계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양철학도 그렇다. 세상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슈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동양철학은 스스로 담론을 주도하고,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근대 이후 동양철학은 그야말로 찬밥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달라져 그 전에는 거들떠도 아니 보다가, 이제 동양철학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예약’을 차릴 정도는 되었다. 이 대접에 황송한 동양철학은 초대를 사양하지 않고, 그 논란에 뛰어들어, 때로 독자적 대안을 충고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페미니즘’에 훈수하고, ‘환경’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듯이 말한다. 물론, 현대적 의제를 두고 지혜를 나누고, 비판을 교환해야 한다. 그런데, 대화가 교환되는 양상이 자못 맹랑하다. 해답은 ‘의제’가 이미 갖고 있고, 동양철학은 전통 용어로, 거기 ‘발라맞추는’ 식으로 흘러간다. 결론이 나 있는 상대라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런 ‘영합’은 앞의 ‘변명’과 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수세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지배적 담론의 현실적 힘 앞에 굴복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 5) 동양철학의 자부심을 갖고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라.

얼마전 미국의 벤처 사업가가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한물갔습니다. 시장이 기대하지 않던 것을 주어야지요” 동양철학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넘어, ‘시장에 있어야 할 것 을 제공할 수 있을까.”

주자학은 공부의 첫걸음으로 立志를 세웠다. 방향을 정해 거기 확고하지 않으면 어떤 볼만한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동양철학의 관건은 변명과 영합을 떠나, 동양철학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일이다.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가. 유학은 그 道가 “나의 몸의 진실이며,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고, 역사에 비추어 분명하며, 자연의 본성에 거스르지 않고, 초월자에게 물어도 자신 있으며 앞으로 올 위대한 인물들도 틀림없이 동의해 줄 것(故君子之道 本諸身 徵諸庶民 考諸三王而不謬,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 『中庸』)” 이라고 한 믿음을 이제 잃고 말았는가. “나는 이 세상의 정복자이며 구원자이며 모든 생명의 피난처이다”라는 위대한 깨달음은 대장경 속에나 있는 말일 뿐인가.

유교를 주제로 벌이는 세미나에서 외국의 학자들은 양복과 넥타이를 한 동양철학 교수가 ‘근대’니, ‘담론’이니, ‘환경’이니 하고 있을 때는 다들 졸다가, 쉬는 시간이면, 방청석에 앉아있던 흰 수염의 두루마기 노인에게 몰려들어 손짓발짓 해 가며 “무슨 말이든 듣고 싶어했다.” 역설적이게도 서양인들은 합리적 언설, 현대적 접근보다, 시골에서 글만 읽은 시골 선비나, 심산의 토굴에서 오래 수련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들에게 ‘들을 만한 무엇 이, 자신들과는 다른, ‘體會 體認된 진실’이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일 것이다.

동양철학은 요컨대 현대에서 들을 수 없거나, 듣기 힘든 그 ‘무엇 을 차별적이고 독자적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말 상식적인 말이지만, ‘동양철학의 적극적 자원’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涵泳, ‘헤엄치고 적셔야 한다.’ 그것이 眞積力久, ‘오래 쌓이고, 익숙해져 그 맛과 가치를 확신할 때’ 그때 그것이 자신이든 남이든,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설



득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 탐구와 훈련의 과정에서 별다른 ‘有益’이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실제 삶을 방해하겠다 싶으면, 동양철학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여기 필요한 덕목이 ‘정작’이다.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학』이 강조해 마지 않듯이, 자신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알려줄 수 없고, 자신이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의나 설법은 하등 어려울 것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 보이면 되는 것이다.”

#### 6) 그렇다고 동양철학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자만도 하지 마라

이 원칙은 바로 앞의 것과 모순되는 것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사물과 사태에는 同異가 더불어 있고, 길은 대개 折衷과 中庸에 있는 법이다 (\* 折衷 또한 용어의 의미가 전통 이전과 이후에 현격히 달라졌다.)

스토아 학파의 황제의 어록을 펼치면 “이런 유교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고, 또 다른 노예 철학자의 어록을 펼치면, “이런 서양에도 불교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네” 하고 놀라게 된다. 스피노자가 그의 ‘윤리학’을 자연의 신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氣를 윤리학의 근원으로 보는 화답과 장재는 물론, 元亨利貞과 仁義禮智를 理, 즉 자연의 ‘의지’이자,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한 ‘주자학’의 사유에 바짝 다가간 듯한 흥분을 느꼈다. 그동안 우리는 윤리학이 ‘당위’이고, ‘강제’이고, ‘외적 규율’이어야 한다는 ‘편견(?)’에 너무 깊이 침윤된 나머지, - 그리고 그것은 또한 범람하고 있는 무질서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한데- 윤리의 목표가 성숙이며, 그것은 우리가 밖을 향해 악을 쓰느라 잊어버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통해, 그와의 ‘합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소치였다.4)

하여간,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양철학‘만’의 진리는 없다는 것. 동양철학에서 실험되고 다양하게 표명된 교설은 다른 어디선가, 물론 좀 다른 개념과 어법

4) 앞에서 과거와 근대 사이의 용어의 단절이 너무나 깊고 결정적이라고 했다. ‘자연’이라는 용어가 그 극명한 예중이다. 나는 自然이란 글자의 의미를 방불하게 읽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방해물이 바로 ‘事物’이나 ‘世界’(\* 이 말들 또한 단절 굴곡이 심하다)를 바라보는 ‘근대적’ 시선이였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시선’이자 ‘방해물’이어서 자각되고 반성되고, 객관화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는 달을 볼 수는 있지만, 눈을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맥락과 상황을 깔고 있지만, 실험되고 표명된 것이다. 물론 꼭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근본적 취지’와 닿을 때, 그것은 자주 놀랍도록 비슷하고, 때로는 똑같아서 사람을 놀라키는 수가 많다. 이를테면 콘즈는 불교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비의적 가르침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한 바 있다. 불교의 핵심적 교의는 흠이나 쇼펜하우어, 윌리엄 제임스가 훨씬 정교하게 익숙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불교의 독특함과 강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體現, 즉 ‘몸으로 구현하는 열정의 강렬함과 그 수단의 정교함과 풍부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말에 전폭 동의한다. 그러니, 둘은 공유점이 많고 서로 배울 곳이 많다.

요컨대 들러리를 서서도 안되고, 자신만을 뺏대서도 안된다. 그래서 중용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하면서, “好戰과 아침 사이에 우정이 있다”고 했다. 동양철학에 절실한 격언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인 만이 중용을 취할 수 있다. ‘근대를 객관화할 용기’와, ‘전통을 장악하는 지혜’를 두루 갖춘 다음, 초대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적어 보았다. 어떤 항목은 너무 급진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지나친 편향도 있다. 그리고 물론,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한 여러 유형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다루지 못했다.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변죽만 울렸을 뿐, “실제 동양철학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조언이나 플랜이 없지 않느냐”고 따질 만하다.

실무로 들어가면, 나는 동양철학의 자원인 ‘한문 읽는 법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문 독법은 새로 가르쳐야 한다.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전면적이고, 타협없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한문의 읽기와 강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즈음 그 방법의 열개를 잡고 세부를 다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어두고자 한다.

‘문자(言)’는 ‘뜻(意)’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자에 걸려 뜻을 얻는 데로 나아가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 한문만 들여다 본다고 뜻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뜻이 있는 곳은 그의 경험과 견문, 독서와 사색 등을 통해 형성된 텃밭과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문자 바깥의 기반이 약

한 사람은 한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뜻을 얻지 못한다 뜻에 걸리거나 거리고 있어서는 그 비판과 확장, 초월의 ‘너머’는 더욱 꿈도 꾸지 못한다. 뜻을 얻지 못하면,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유가 깊어지지 않는다. 사유가 깊어지지 않으면, 언사가 적실하지 않고, 언사가 적실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소통하고 설득하기가 난감해진다.

동양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 혹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한문을 오래 읽고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만큼 이해도 깊어지고, 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문의 뜻은 그 텍스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 유교는 유교밖에 있고, 불교는 불교밖에 있다. 오래 읽은 사람이 그 텍스트를 가장 모를 수 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또한 진실이다. 正言若反. 이를테면, 연구에 질려 감상의 즐거움을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소설가 이병주의 『허망과 진실』이라는 책이 있었다. 사마천과 루쉰, 다산, 니체 등을 읽고 느낀 감상과 평을 적은 에세이였는데, 그 가운데 다산 편을 읽은 어느 학자는, 자신이 그보다 나은 글을 쓸 수 없어서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철학 이야기』로 유명한 듀란트는 『문명 이야기』 첫 권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을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주자와 왕양명은 공히 자연이 최고의 선이며, 그 자연의 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덕으로 보았다. 누군가가 자연에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자, 주자는 아퀴나스와 스피노자, 그리고 니체의 기풍으로, 선악이란 편견이며 개인이나 인류에 유익한지 해로울지에 따라 붙인 이름들 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연은 선악을 넘어 있으며, 우리들의 이기적인 명명을 무시한다고 가르쳤다’ 나는 왕양명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익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주자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 통찰을 1930년대에, 한문도 읽을 줄 모르면서, 영역된 책 한 두 권과 논문들을 일별하고는 선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그 발상이 주자나 양명만의 것이 아니라 서양의 일급의 철학자들과 공유한다는 것까지 짚어주었다. 멀리, 라이프니츠는 선교사들이 편지로 전해주는 중국의 易, 그리고 주자학의 自然을 읽고, 물리적 사고와는 다른 유기적 사고를 간파했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 속에 새겨 넣었다.

이를 보매, 동양철학에서의 관건은 한문을 읽는 능력보다, 그것을 통해 사유하

는 힘이다. 문자를 뜯어 읽고 널리 보는 博學은 기본이라 자랑할 것이 못된다. 이 바탕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구체적 탐구’가 필요하다. 즉, 審問을 토대로, 慎思의 구체화, 그리고 明辯의 자신감 마지막으로 篤行의 확인까지 나아가야 自得을 말할 수 있다. 그 자산 위에서 동양철학은 서양철학이나 다른 인문사회과학과 더불어, 호전이나 아부의 극단을 지나,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정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다

● 투고일 : 2003. 5. 12

● 심사완료일 : 2003. 6. 3

● 주제어(Key words): 동양철학(East Asian Philosophy), 언어(language), 근대(modern), 철학(Philosophy), 무시(ignorance), 야유(cynicism), 변명(apology), 칩거(seclusion)